

‘교단분립’ 결정될 UMC 총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

오는 5월 개최되기로 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교단 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4년마다 개최되는 UMC 총회가 오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

UMC 총회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사가 열리기로 했던 장소인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5월 1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해 총회가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네소타 보건부, 팀 왈츠 주지사, 미니애폴리스 제이콥 프레이 시장이 50명 이상의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는 후속 제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클레어 김 심슨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같은 결정이 예상되었으며 새로운 계획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의 초점



지난 2013년 5월에 열린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보다 더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들. ©UMC.

은 총회 집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개인, 가족,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 전염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미지의 신체적, 정

서적, 영적 필요를 다루는 투쟁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연합 감리교회가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총회 연기 결정은 UMC 주요 의회가 연기 요청서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나 발표됐다.

지난 13일 발송된 서한에는 “정부의 여행 제한으로 인해 중앙 회의 총대들의 참석이 어려워지고 있

다”며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모임에서 국제적인 여행 및 회의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UMC 총회에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교단 분립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파를 꾸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 등 교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향후 4년 동안 2,500만 달러(약 290억 원)를 받게 된다. 이 계획안은 지난 1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미시간 특별 회의에서 이 계획안 제출 안건을 두고 총대들이 투표한 결과 927개 92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오는 5월 미네애폴리스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합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다.

이미경 기자

“이민 교회와 성도들 섬기기 위해 마스크 제작 시작했다”



LA백송교회 마스크 제작 모습. ©교회

LA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지난 18

일부터 수제 면 마스크 제작에 들어갔다. 김성식 목사는 “미국에서 마스크

LA백송교회 마스크 제작 작은 이민교회 지원

를 주문하면 한 달 이상 걸려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며 “이순희 목사님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마스크 제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LA백송교회 마스크 봉사단은 규모가 작지만 실력은 전문가급이다. 원단 회사를 운영하는 임숙영 집사와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이민숙 전도사, 퀴트 전문가 전나영 집사 등 10여명이 뜻을 모아 1주일에 두 차

레 씩 제작에 나서고 있다. 생산된 마스크는 LA 지역 작은 이민교회들에 우선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LA백송교회의 모교회인 인천 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작은교회들과 영세 상인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1,500만원과 마스크 2,000장을 지난 18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긴급 재난 구호단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구호금은 마스크 생산에 팔을 걷어붙인 교역자들이 사재미를 모아 조성한 것이다. 교역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력

을 벌이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을 생각하며 한 달 사례비 중 30%를 반납해 1,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백송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마스크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지난 6일부터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수작업으로 제작 중이다.

이들은 제작한 마스크를 매주 월·목요일 교회 앞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1,000장씩 나눠주고 있다.

이대용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회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 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 매 처
Space Eum Cafe 213.386.3896
 3020 Wilshire Blvd. #100 213.605.2772
 Los Angeles, CA 90010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OC 기독교교회협의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 삶 영위해야”

올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보류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모임 참석이 어려운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 이하 OC 교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OC 교협은 집회 금지, 이동 제한, 휴교, 격리생활 등으로 인한 공포심과 불안,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우려하면서 “매일 일정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인 삶을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OC 교협은 또 “자칫 외부와 단절되어 힘겨워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화나 SNS로 수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이 기간 개인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권면했다.

한편 OC 교협은 올해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보류하고 각 지역 교회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하 OC 교협 성명서 전문.

(OC 교협 성명서)

성도 여러분, 국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매사에 조심해야 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와 거주 정부에서 집회 금지, 이동 제한, 휴교, 격리생활이 강조되면서 공포심, 불안,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위축되고, 신앙의 무기력감이 생기고, 영적 침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상목 목사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심신의 위축과 신앙의 무기력함의 확산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의 영적 삶의 침체도 더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일정하게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자칫 외부와 단절되어 힘겨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가족과 교우들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의 친밀감을 강화해서, 수시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여 서로 힘을 북돋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로 말

미암아 OC 교협에서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급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보류하기까지 하였지만, 아직 힘겨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청결을 유지하며, 자신의 정신적, 신앙적 경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화나 SNS로 서로 자주 연락하고 격려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OC 교협 회장 박상목 목사 및 회원 일동

김동욱 기자

기고 벤츄라교역자협의회 회장 김진구 목사

코로나19 사태에 가져야 할 지혜

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기사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3월17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가 글로벌 불황에 들어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심리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가 실제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까지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정부의 방침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2, 이 사태로 인한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이민자들은 소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것 역시도 긴 안목을 가지고 규모 있는 재정계획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서

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번 사태와 비슷한 재난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혜롭게 견디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가?'입니다.

이 상황을 함께 견디며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이후에 있게 될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할 안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과 절망 중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심리적으로 압도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김진구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성도수 많은 교회 ‘온라인 예배’ 바람직해”



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교회 예배 모임의 법률적 자문에 대한 전화 컨퍼런스를 갖고 “주 정부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따라야 할 때”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가 대기 명령(Stay at Home Order)을 내리고 10명 이상의 모임과 불필요한 외출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부 담당 주성철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각자 집에 머물도록 법을 제정했기 때문

에, 소수가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위하여 예배를 녹음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며 “중소 교회 가운데 온라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 성경 봉독, 기도 등 기타 필요한 내용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메일로 성도들에게 영상을 보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주성철 목사는 “자가 대기 명령의 초점은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함이나 교회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모두가 집에 머물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 시스템이 준비가 안된 교회는 주 법대로 6피트 이상 떨어져, 손 세척 및 마스크를 착용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성도수가 많은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재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경찰 또는 예비군 동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항간에 미국 전체가 계엄령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 목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시행하려는 사람 또한 조심해야 하고, 무분별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0 - 2021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 | |
|---|---|
| 신청 대상 | 선발 일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Categories: i)General ii)PK & MK iii)Seminar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15일 ~ 4월 26일 • 선발 결과 발표: 2020년 7월 12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0년 8월 중순 예정 (추후 발표) |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달라스 세미한교회, 온라인 부흥회 '세미한 7:14' 개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14분 시작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소재한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가 온라인 특별 부흥회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세미한 7:14'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14분에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역대하 7장13-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코로나19의 종식과 환자들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온라인 특별 부흥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www.YouTube.com/theSemihanChurch 또는 유튜브에서 '세미한교회'를 검색하면 된다.

이은상 목사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을 묶어버린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계와 사회의 여러 분야를 마치 밭을 기경하시듯 새롭

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온라인 세미한 7:14 부흥회를 시작하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이어 "여러 교회가 기존 수요, 금요일, 주일예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이번 온라인 특별 부흥회의 목적"이라고 설



에서 예배에 참석했으며, 녹화영상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400여 명이 시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욱 기자

진유철 목사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

"문제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는 지난 15일, 칼럼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문제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제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주문했다.



진유철 목사

진유철 목사는 "영적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라며 "불안과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세상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한다"고 당부했다.

진 목사는 이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나 환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장소보다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유철 목사는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 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기고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제이슨 송 교장

염려와 근심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 두려움의 원천은 미지(unknown)이다.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독감, H1N1, 등)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대응할 방법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하지만 COVID-19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의학 전문가들이 시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대중이 공포에 떨고, 근심과 불안이 주시시장을 폭락시키고, 걱정과 염려가 학교 문을 닫게 하고, 캘리포니아, 미시간, 뉴욕을 섰다운시켰다. 즉, 미지로 인해 온 세계가 전전긍긍하며 앓고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 염려,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치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 못 관리하면 해(害)가 되는 것 같이 말이다.

감정이란 것은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백발인데도 다투고 싸우고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이 있다. 큰 일을 맡은 리더들도 감정관리에 약하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혈기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었



제이슨 송 교장

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가? 사울은 질투와 열등감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우물증과 불안감을 장편의 시로 읊어냈고, 모세는 증오로 사람을 죽이고 화도 버럭 냈는가 하면, 엘리야는 큰 기적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 여인의 위협에 겁먹고 도망치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 특히, 지금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주식이 폭락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체가 파산하고, 금지령으로 인해 활동을 못할 때 많은 사람이 염려와 답답함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기 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야 절망감을 털어내고 소망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

려와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큰 그림을 잊어선 안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한걸음 뒤로 물러서 인생과 삶과 죽음과 영원 같은 중대한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둘째,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과 목적지를 향해 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조정해야 한다.

셋째, 가족과 친지, 친구나 동료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사랑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넷째, 악몽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결국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기에 후회하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염려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바울 사도는 과거를 기억치 말고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라고 조언했고, 예수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격려했다. 염려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긍정과 소망을 바이러스같이 퍼뜨리고 전파하자.

'굽주님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직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복음의 빛이.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정신대 영예교수), 이종목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대대표), 신정원목사(복음전대 대표), 유영지목사(동일모임대표), 김민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님보다 더 큰 목마름' (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직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의 순교종언으로 기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자선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만년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ltrua HealthShare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 (수퍼)	Essential (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ura 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 장례비 보조
-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 (714) 738-1234 Fax: (714) 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info.primeh4@gmail.com

문의: 티나 정 (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 (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150

“컨퍼런스 콜과 Zoom 동영상으로 하는 재택사역의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즈니스, 운동경기, 행사 그리고 교회의 예배모임이 한꺼번에 세계적으로 다 막혀 버린 시대를 모두가 당황하면서 보내고 있다. 요즘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사역을 재택 사역이라 명명해 본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의 가정만 보아도 새벽기도를 컨퍼런스콜로 한다. 아침 5시 30분에 교우들이 각자 가정에 있으면서 음성으로 함께 드린다.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강해를 듣고 같이 기도한다.

국 48개 지부에서 50개가 넘는 비전스쿨이 열렸다. 3월 첫 주 시작할 무렵 미국 전체에 모임 자제령이 선포되었다. 10명 이상의 모임은 못하고 식당도 기업도 교회도 다 폐쇄명령을 받았다.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의 강제령이지만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야 할 명령이다.

물론 선교단체 비전스쿨도 이번 학기는 취소되려는 잘나 다민족 영아권 학생들 비전스쿨에서 zoom 동영상 비전스쿨을 임시로 계획했다. 미주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 단 하루 만에 zoom시스템을 지부마다 숙지하면서 이번 주도 2주째의 비전스쿨을 은혜중에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할렐루야.

주일엔 각 방마다 다른 예배로 드렸다. EM pastor인 아들은 주일예배를 컴퓨터를 통해 Zoom 동영상 네트워크로 실행 예배를 드렸다. 화면에 비추인 성도들을 각자가 다 바라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에 어려울 때 그것을 뚫고 나가려는 이 세대의 영적 몸부림 같이 느껴졌다. 선교단체에서 미주 전체 youth팀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큰 딸도 Zoom 영상 시스템과 컨퍼런스 콜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전국적인 예배를 동영상 네트워크로 진행한다. 대학을 다니는 막내도 자기 방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주일예배도 동영상으로 드린다. 막내는 며칠 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업소에서 점포 클로즈 조치를 하면서 레이오프 통고를 받아 슬피 울면서 사회의 쓴 맛을 조금 보았다.

필자도 지부들의 비전스쿨에 강의를 하면서 가슴 벅찬 은혜를 맛보았다.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전 훈련생과 스태프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들을 보며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세심하게 강의를 했다. 강의 후 화면으로 강의를 들으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색다른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평가했다.

필자의 가족은 5명이 모두 집에 머무르면서 각자의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역자 가정의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황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는 버티고 있다.

물론 임시이다.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세계의 전염병이 하나님 은혜로 다 제하여지고 다시 우리에게 이전의 소중하고 평범한 그때가 돌아오면 이 모든 임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이 비전스쿨 후에 저 열방으로 향할 선교팀들 고난의 때에도 세웠노라고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렇다. 임시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전시와 같다. 평상시대로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은총이 있었던가를 깨닫게 된다. 아무 어려움 없이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가고 선교를 하던 아무 일 없던 그때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일상의 평범함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한다. 이제는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런 힘겨운 때를 인내하면서 보내다가 부활의 아침을 맞을 것이다. 그 승리의 날이 머지않았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을 다 함께 믿으며 이때를 이기기를 기원한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매년 2회씩 시행하는 비전스쿨이 3월부터 열렸다. 미주에서 전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0)

코로나 극복과 역경지수 기르기!

코로나의 영향이 일파만파입니다. 평범한 삶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의 아우성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입니다. 역경지수(AQ)는 심리학자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3개 지수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성공을 위한 3Q는 역경지수(AQ),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 그리고 감성지수(EQ: Emotion Quotient)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고, 우리는 역경을 참고 이겨야 하므로 역경지수(AQ)는 중요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경지수(AQ)라는 말은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Dr. Paul Stoltz)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톨츠 박사는 21세기는 IQ나 EQ보다 AQ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누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합니다. 역경지수(AQ)는 어려울 때 더 필요하고 빛을 발하는 덕목입니다.

스톨츠박사는 등산을 예로 들어 역경지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난관을 만났을 때 등산가들의 대처유형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난관을 포기하는 사람(quitter)이 있고, 둘째,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camper), 셋째,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climber)이 있습니다. 물론 난관을 헤치고 전진하는 등반가(Climber)의 AQ가 가장 높습니다. 요컨대 역경지수(AQ)는 새로운 스트레스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의미합니다.

역경지수(AQ)는 무모한 '깡다구'와 다르고, 근거 없는 배짱이나 근성과 다릅니다. 역경지수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 판단, 그리고 끝까지 역경과 맞서는 끈기와 인내가 적절히 어우러진 삶의 힘입니다. 역경지수는 네 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합니다. 네 가지 기준은 네 가지 영어 단어의 머리글을 따서 CORE라고 합니다. 역경지수(AQ)를 평가하는 네 요소(CORE)는 C:Control(통제력), O:Ownership(책임감), R:Reach(저항력), E:Endurance(참음성)입니다. 역경을 이기려면 자기관리 능력인 자제력과 윤리적 책임감, 고난을 견디는 능력과 끝까지 견디는 참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자들은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어떻게 역경지수를 높일까요? 인생 코치들이 전하는 고통을 당할 때 창조적으로 역경을 이기는 비결, 역경지수 강화 비결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첫째, 고통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실패는 순간의 좌절입니다. 삶의 고통도 잠시면 끝납니다. 고통에 시달릴 때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고통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리 길지 않았음을 쉽게 깨닫습니다. 현재의 고통도 곧 끝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멀지 않은 장래에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곧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히 맞서야 고통

의 세월을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로부터 삶의 교훈을 배우라! 실패나 그 실패로 인한 고통은 우리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도 스승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실력이 되고, 고통과 좌절이 계급장이 됩니다. 실패나 고통은 위대한 인생의 스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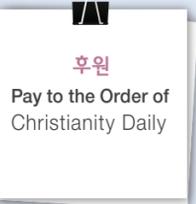
셋째, 고난의 희생양 되기를 거부하라!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연민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당할 때 자기희생(Victimization)이나 자기비하(Self-depreciation)를 피해야 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넷째, 고통에 스스로 굴복을 거부하라!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힘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앞에 포기를 선택합니다. 고통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고통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도시가 정지되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딱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모두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은 날 환히 웃을 때 각자의 역경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항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코로나19’로 교회 못 오는 성도들,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

장신대 최진봉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예배와 설교’ 제언

장신대 최진봉 교수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교회회의 비밀상성에 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예배와 설교 사역”이라는 제목의 제언을 16일 장신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진봉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근본적 혼란은 예배가 발생하는 자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원색적 도전으로, 교회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나 가정/개인별 디아스포라(재택)예배와 같은 임시적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그런데 필자에게 있어 교회의 비상사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갖는 우선적 과제는 교회회의 일상으로서 예배의 진실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총에 온 성도들이 함께 초대되는 구원의 자리로서, 하나님은 흠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한 몸으로 모으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그들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며 “이것이 성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증언하고, 역사적 교회들이 경험을 통해 면면이 고백하는 예배의 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역사적 실재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성, 곧 흠어져 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회합하고 교제하는 행위에서 발견된다”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즉 회집하는 성도의 모임의 출현-유지-강화는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은 흠어진 성도들을 불러 모아 결속시키는 동력으로, 그들은 모일수록 서로를 결속시키는 말씀을 거듭하여 듣게 되므로, 그들의 결속은 더욱 강화된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는 방편이 바로 예배(성찬)와 설교”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교수는 “예배와 설교는 교회를 세우고 지속시키는 가장 권위 있고 보편적인 교회의 실천으로서, 어느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모임이 아닌, 온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공적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이나 신학적 확신과 별개로,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박해와 전염병, 전쟁 등과 같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회집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회의 일상성을 멈추어야 했던 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3월 15일 오프라인 공적 예배를 중단한 채 온라인 생중계를 위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유튜브 캡처

최 교수는 “그때마다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방식으로 신앙과 예배를 유지해 왔다. 심지어 삼일운동 당시, 서대문형무소는 붙들린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며 “오늘 한국교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주일예배를 위해 저마다 특단의 예외적 방식을 취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영상이나 인쇄물을 통한 가정/개인별 디아스포라(재택)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므로 성도 간 비대면 예배나 설교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며 특수한 상황, 곧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하는 임시적 자구책임을 교회에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 교회는 애통해 하고, 온 성도는 교회가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국가와 지역사회의 방역 기관과 이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자들 공동체를 위한 주중 돌봄 음성통화로 기도, 화상통화로 만남 격려된 성도들 위한 손편지도 제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밀상적 예배의 실행을 위한 지침들로는 ‘공동체를 위한 주중 돌봄’을 꼽았다. 그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목회자는 목양적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흠어져 있거나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봉 교수는 “교회들은 각기 처한 상황과 여건 안에서 목양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철저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배나 기도실 공간을 개방할 수도 있다”며 “목회자는 문자로 설교의 중심 메시지나 중심 성구, 공동체의 기도제목들을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음성통화로 함께 기도하고, 화상통화를 이용해 비대면 만남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격리됐거나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귀한 지체이며, 교회라는 성도의 교제에 속해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교회 예배 지속할 경우 철저한 방역과 거리 확보 유의해야 예배 시간 40분, 설교는 20분 내로

미자립교회나 상가 교회 등 형편상 교회에서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몇 주간의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예배나 가정예배 등의 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과 특수한 이유로 교회에서의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곳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예배실에 대한 방역을 상시

화하여 예배시작 전과 후, 혹은 각 시간별 예배 사이 예배공간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며 “예배위원들을 포함해 모든 예배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예배위원들은 자신이 맡은 순서진행 시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토록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배의 기도나 찬양, 인도 시의 언성은 넓은 공간의 대중을 향하여 나오기에,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크고 힘이 붙는다”며 “따라서 성도들과의 거리가 충분히 멀지 않으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순서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예배자 간 거리확보로 예배자 대비 공간이 비좁거나 좌석이 부족할 경우, 예배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예배 별도 참석인원 제한을 두어 신청을 받거나, 교회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배 참석을 못 하게 된 성도들은 그 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교회는 예배 참석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참석권을 격주로 부여하여 모두가 동등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감염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실내 공간에서 모여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예배 진행 시간을 최대 4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순서나 설교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가령, 설교 전 대표기도는 주보에 기도문을 짧게 넣어 함께 읽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예배 전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은 당분간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설교 시간을 18분으로 하되, 최대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금의 경우 바구니는 사용하지 않고, 예배실 입구 헌금함을 사용토록 해 헌금위원과 예배자 간의 접촉을 줄이도록 한다”며 “축도와 후주 후 예배자들은 개인 기도를 마치고 예배실을 나간다. 예배인도자와 설교자는 예배 후, 교인들과의 인사를 가급적 생략하되,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되 악수는 하지 않는다. 교회식당이나 주방은 가급적 폐쇄하고, 예배 후 식사나 애찬은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회는 비상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진행한 영상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디아스포라(재택) 예배 방식이 사후에 예배의 일상적 방식을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교회는 현재의 불가피한 비대면 예배 방식이 오늘날의 탈종교-교회주의 사조와 맞물려 (성도의 회집과 교제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가현실적 교회론으로 부상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진봉 교수는 “분명 교회는 형식적이며 도그마적 교회주의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 안에 회집하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는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바탕”이라며 “예배와 설교 사역은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정보를 처리 혹은 소비하는 행위야 아니며, 속성상 현대 기술문명의 혁신에 부응하여 보다 신속, 편리, 효율적인 기술로 대체가능한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영상예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나 선교적 활동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교회는 고유한 영적·사회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역사 속에 ‘보여야 할 교회’는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바라기는 교회회의 비밀상성에 놓인 현 상황이 그간의 교회의 실천을 근원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참된 교회를 위한 보다 생동력 있고 균형잡힌 예배로 이끄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AB),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HYUNDAI Spring sales event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교회 모임은 안되고, 쿼어 축제는 된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쿼어축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코로나19에도 쿼어 축제 서울광장 개최 승인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방역지침 준수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에서 오는 6월 12-13일 쿼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를 방문했고, 방역지침을 어기는 교회들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

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쿼어문화축제는 허가한 것이다.

퀴어문화축제 측은 6월 12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날 오후 12시까지 48시간 서울광장 잔디광장과 동·서편광장 등을 사용하게 된다. 서울광장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박원순 시장이다.

이대웅 기자

文 대통령 “예배 열겠다는 교회 적지 않아 걱정”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전달했다.

또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15일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서울시도 20일 교회의 현장 예배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대구시, 신천지 시설 37개소에 ‘무기한 폐쇄’ 명령



권영진 대구시장이 24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 시장은 신천지 시설의 폐쇄 조치들에 대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SBS 캡처

대구시가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일부 시설에 무기한 폐쇄조치를 명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장교회 2곳에 대한 미입교자 명단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 방역에 빈틈을 제공한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는 코로나 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51개소에 대해 폐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신천지 교회 소유 임차시설 37개소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무기한 폐쇄조치 하고, 신천지 교인 등 개인 소유시설 7개소는 4월 7일까지 2주간 폐쇄를 연장한다. 사택 및 숙소로 파악된 7개소는 외부인 출입금지조치가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중으로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의 폐쇄 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인에게 폐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구시는 폐쇄시설 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이 같은 조치가 가혹하다며 반발한다는 질문에는 “신천지에 가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

기 위한 의무라 생각한다.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대구가 너무 고통을 받았다. 일부 이야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소규모 모임에 대한 특이 사항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느슨하지 않다.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편”이라며 “집단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해서 접촉하거나 삼삼오오 모이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권 시장은 “자가격리 상태였을 때처럼 관리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을 통해 삼삼오오 모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에 따른 단속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위장교회 소속인 신도 47명을 2차 행정조사 이후인 지난 19일에 제출했다. 이번 명단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애초에 대구시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이들이 정식 등록교인이 아닌 ‘미입교자’이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경호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영혼의심과 심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게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게)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청년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선교를 위한 공동체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더십예배(월, 수)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임과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안 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출강회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i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MP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회 목 7:45
588 Aliso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고,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美 미시간 주지사 “교회, 정부가 강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레첸 에스더 화이트머(Gretchen Esther Whitmer) 미시간 주지사

‘50명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서 교회는 제외

미국 미시간주 그레첸 화이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에서 예배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3일 보도했다. 화이트머 주지사는 최근 ‘폭스뉴스 선데이’ 진행자인 존 로버츠(John Roberts)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50명 이상의) 모임 때문에 의지가 꺾이지만, 정부가 교회에 문을 닫으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화이트머 주지사는 “정교 분리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우리가 강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갖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예배 참석을 고려하는 이들을 향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검사 키트의 부족을 꼽은 그녀는 “데이터가 없는 지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모든 것이 검사 키트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시간주는 최근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 간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한 미용실과 마사지 업체, 스파, 문신·피어싱 업체들에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시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루이지애나주에서 식료품 쇼핑이나 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경우 주민들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자택 대피 명령을 발령했고, 펜실베이니아주도 다음 달 6일까지 델라웨어·필라델피아 등 7개 카운티에 비슷한 명령을 내렸다. **강혜진 기자**

뉴욕 유대교 결혼식서 코로나19 확진자 100여명 넘게 발생



©뉴욕타임즈 보도화면 캡처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유대인 결혼식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즈(NYT)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날 브루클린 파크와 윌리엄스버그에서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은 브루클린 거주자 2명과 대규모 유대교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로, 2개의 긴급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아시아 긴급검진시설에서 진행했으며, 결과는 밤에 나왔다. 전날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에는 코로나 클러스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클러스터는 동일할 원인으로 나타난, 상호 연결된 감염 그룹을 말한다.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만약 뉴욕에 클러스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NYT는 “브루클린의 확진 판정은 모두 검진 수가 점진적으로 늘기 이전

에 실시된 검사 결과로, 브루클린이 뉴욕의 첫번째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 프레디 골드스타인 대변인은 “오시리스 바르보트 복지부 담당자가 브루우 파크의 경우를 검토해봤는데, 이들 사이의 공통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유대 공동체가 이번주 잇따라 대규모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되어 왔다고 NYT는 전했다. 소방서는 17일 윌리엄스버그에서 200명 이상의 해객이 참석한 유대인 결혼 축하연을 해산시켰다고. 결혼식이 진행된 후, 방호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보로나 공원 인근에 위치한 긴급검진센터를 방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3천 명을 넘어섰다. 하루 만에 4,6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 수도 193명으로 증가했다. **강혜진 기자**

세계복음연맹, 3월 29일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 로 선포



세계 금식 기도일을 알리는 세계복음연맹 홈페이지

“주여, 도우소서” 주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세계복음연맹(WEA)이 오는 29일을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금식과 중보 기도를 제안했다.

WEA 애프라임 텐데로 총무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위기는 세계 구석구석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 시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수백만 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이들은 질병의 위협 뿐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텐데로 총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추는 것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상 기하게 된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이 세계를 보전하고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의심을 알기 때문”이라며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다. 지금의 힘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

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하자. 특별히 일선의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을 통해 성경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중보하며,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행사의 주제는 시편 107편에서 영감을 얻어 ‘주여, 도우소서’로 정해졌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 내용을 담고 있다.

WEA는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교회나 가족들, 개인들은 함께 기도와 금식에 참여할 수 있다.

텐데로 총무는 “이 기도의 운동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성도들이 매일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전 세계 기도 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worldea.org/prayercovid19

강혜진 기자

펜스 부통령

“십일조 통해 사역자들 도우라” 권면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백악관 제공

교회 사역자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 하고 있어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교회 사역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도들에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십일조를 통해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2일 보도했다.

전날 코로나19 관련 백악관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은 상식과 긍휼, 관대함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예배를 지속하기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후에도 사역자들은 푸드뱅크나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전역에서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 나라의 삶 속에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헌금을 하는 것도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헌금을 해보라. 우리 공동체에서 사역자들이 줄곧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교회를 위한) 당신의 지지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렌 펜스 여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CNN이 21일 보도했다. 이 검사는 최근 펜스 부통령의 수행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뉴욕주는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며, 연방정부가 의료장비 구매와 공급을 국유화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중단·제한명령·자택대피령도 이어지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체육관과 헬스장을 폐쇄 조치했다. 또 식당 영업은 배달과 ‘드라이브 스루’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CM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韓語)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오후 5:3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배려공평한 사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함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으로 새 생명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3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3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일권 담임목사

김일권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학사과정 (B.Th/B.A) 126학점</p>	<p>석사과정 (M.Div/M.A) 96학점</p>	<p>박사과정 (D.Min/Ph.D) 48학점</p>	<p>3월16일 개강</p> <p>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p>
---	---	--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커서 좋다더니 이젠 커서 싫다네요.”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르는 에어버스 A380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약 500여 명의 승객을 태워 나르는 ‘하늘 위의 호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인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급감하자 직격탄을 맞아 운행을 중단하고 공항 주차장에 그냥 세워 두게 되었는데, 그 정류료 즉 주차비가 한 대당 하루 2,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종 10대를 보유한 대한항공은 한 달에 주차비만 약 60만 불을 내야 한다니, 설상가상인 셈입니다. 빈 좌석이 남아도 운행을 하지 않으니 연료비가 많이 들고, 화물용으로 쓰기에 효율성이 떨어져 줄지에 천대받는 기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비행기만 불시착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극장들과 콘서트 홀이 문을 닫고 공연 행사들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들도 문을 닫고, 전시를 방불케 하는 사재기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생활의 리듬마저 깨지고 있습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천지창조 이후 처음으로, 7일의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잠시 대처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벌여 하루 사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렌트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두 달 장사가 안되면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도 도미노 현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고,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A380 기종이 받은 충격만큼 만만치 않은 충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당장 교회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버스 다섯 대가 눈에 들

어웁니다. 주일에는 다섯 대도 모자라서 스쿨버스까지 대절하여 좀 떨어진 주차장에서 성도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부터 A380처럼 전부 그냥 서있습니다.

주일에는 방 한 개도 아쉽고, 이것도 부족해서 텐트까지 치고 성경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전기세라도 아끼려고 빈방에 불을 끄고 다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너무 소비 내지 낭비하며 살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맥도널드일 때도 휴지를 듬뿍뽀뽀 뽑아 쓰던 버릇을 고치고 화장실 휴지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두루마리 휴지도 두 칸만 끊어 쓰고, 페이퍼 타월도 반으로 잘라 아껴 쓰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놓고 이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도 남는 음식이 없도록 절약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각오로 당분간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손을 놓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손해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로 얻은 교훈 들을 마음에 새겨 정상화되었을 때 좀 더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지금의 기다림의 때입니다. 학교도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도 카지노도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 졸업식을 취소하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가세티 시장의 요청에 따라 5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은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교회도 모든 모임을 잠시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폭풍이 찾아오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때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기다림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라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생각을 혼미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중에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다투듯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시 56:3).

기다림의 때에 지나친 낙관주의를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신중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롬 8:2). 하지만 인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생의 문제나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인정하고 대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때에 조급함을 삼가고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신중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롬 11:33). 기다림의 때에 조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기대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삼가십시오. 조급하면 초조해 집니다. 초조해지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한 상황일수록 조금 느긋한 마음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가능한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처럼 모든 바이러스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영혼 외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해결될 것입

니다. 하지만 몇 주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주의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다림의 때에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른들은 온라인 예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른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장차 찾아오게 될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기다림의 시간에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변화의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때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다가올 변화를 예측해 주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가올 변화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와 각 나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합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로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 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nc2020@gmail.com

The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in Marina, CA, is looking for a Youth/EM pastor with a pioneering spirit to build a multi-ethnic community. Though the congregation is small in number, it is made up of dedicated adults and adolescents who are passionate about God and the church. CCC was plant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mkfpc.org) to provide Christian witness and service in the area.

1. RESPONSIBILITIES INCLUDE:

1. Lead Sunday worship, including preaching, and provide weekly Bible studies
2. Oversee administration of the Youth Ministry and Sunday School
3. Plan, execute, and evaluate ministry events/programs throughout the year
4. Coordinate EM ministry with Korean ministry's vision and goals

2. QUALIFICATIONS:

1. Master of Divinity or equivalent from an accredited seminary
2. Experience in Youth/English Ministry
3. Possess a strong calling to shepherd a young generation
4. Fluent in both spoken and written English (Korean is preferred)

3. APPLICATION REQUIREMENTS:

1. Resume including photo of self + family (if married)
2. Statement of philosophy and theology of ministry (one page)
3. Personal testimony: faith journey and the call into ministry (two pages)
4. Two sermons
5. Two ministry references with contact information

4. Salary & Benefits:

1. Salary range is \$45,000-55,000, depending on experience and family circumstances
2. Benefits are included with health insurance
3. Two weeks of paid time off per year (one week during first year), and one conferenc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er year

5. Interested applicants should email all application requirements to Rev. K. Rhee (woong101@gmail.com)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 (Salisbury)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PCUSA)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목회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 (담임목사, 부목사 경력 포함)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사진 포함)
- PCUSA MIF양식 (pc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포함)
- 추천서 2부(목사 1명, 장로 1명)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CD/DVD/USB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 최근 3주간 주보
- 목회 비전과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제출처

- 제출 마감일: 2020년 4월 18일(토)
- 보내실 곳: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Attn: Eld. Nakin Sung (성낙인 장로)
2420 N. Salisbury Blvd. #2, Salisbury, MD 21801

기 타

-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청빙위원장 성낙인 장로
Email: salisbury5183@gmail.com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231 North Division Street, Salisbury, MD 2180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학교
 교회학교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만 사내에서 근무하시며 완벽하게 담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작성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패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자외선 차단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옆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룩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위장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항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작성,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뺨간고, 붉은 얼굴, 머리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볼록, 근중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가와 아드모아)

중세 '흑사병' 은 하나님의 징계였을까?(1)

[특별기고] 백석대 명예교수 이상규 박사 '흑사병이 유럽 사회에 끼친 변화들'

시작하면서

'대역병'(大疫病) 혹은 '유행병'이라고 불린 '흑사병'(The black death)은 14세기 유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재앙이었다. 이 병이 처음 발견된 1347년부터 병세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약 2년 반 동안 이 병으로 죽은 이는 유럽에서만 2천 5백만 명에 달했다.

1351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분명한 원인으로 모른 채 검게 물든 몸으로 죽음을 맞았다. 그렇다 해서 이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352년까지 약 5년간 계속되던 괴질은 그 위세가 현저히 약화됐지만, 그 후 300여 년간 주기적으로 유럽을 휩쓸었다.

지금은 이 유행병을 흑사병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 흑사병이라 부르게 된 것은, 키에네루드(R. Kjennerud)에 의하면 18세기 이후인데, 감염자의 사체가 점점 검게 변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병에 감염되면 각혈하고 팔다리에 종기가 생기고 몸에는 검은 농포가 생겨 몇 날이 못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을 몰라 단순히 격리시킬 정도였다. 그래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대 재앙이었다고 말한다.

중세 후기 이 흑사병은 쥐와 음식물을 통해 주로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인 페스트로 추정돼 왔는데, 지난 2001년 영국 리버풀대학교 크리스토퍼 덩컨과 수잔 스콧) 교수가 공동 저술한 '전염병에 관한 생물학'에서는 흑사병의 원인이 검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아니라 고열과 출혈을 일으키는 에볼라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흑사병이 2-3일 만에 48km 정도 이동했으나 쥐벼룩이 옮기는 선(線)페스트는 1년 동안 91m 정도 밖에 이동할 수 없었으므로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의 시원과 전파, 확산과 소멸, 그리고 유럽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당시 교회는 이런 질병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소개하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에 처한 한국 교회의 반성적 성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흑사병의 시원과 전파

이 병이 처음 발병한 것은 서양이



중세 흑사병을 표현한 그림.

아닌 동양의 중국이었다. 곧 몽고, 인도,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로 확산되었는데, 서양인들이 이 병의 소문을 들은 것은 1346년이였다.

이들은 저 멀리 동양에서 기이하고 비극적인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흥흥한 소문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문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여행과 통신이 편리해진 오늘날도 서양인이 볼 때 중국은 먼 곳으로 치부되는데, 중세 시대 서양인들이 볼 때 중국의 재난을 듣고 위험을 느끼거나 동요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이 못 되어, 그 질병은 유럽의 들관으로 스며들었다. 이동 경로는 다양했겠지만, 치명적인 경우는 선박을 통한 이동이었다.

배경은 이렇다. 몽고족은 크림반도 카파에 있는 제노바인들의 교역소(交易所)를 공격하고 있었다. 현재 이곳은 페오도시아(Feodosia)라 불리고 있다.

그런데 몽고족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여 병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퇴각하기 전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채 온기가 가시지 않는 죽은 시체를 성 안에 던져 넣기 시작했다. 이때 이들은 큰 투석기를 이용했다고 한다.

작전은 주효했고, 그 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도시에 역병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 질병으로 크림반도에서만 8만 5천명이 죽었다고 한다. 다급해진 제노바인들은 갈리선을 타고 지중해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페스트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

이다. 치명적인 접촉은 1347년 10월 일어났다. 흑해 지방에서 온 10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 메시나(Messina) 항구로 입항했는데, 이 선박에는 이상한 화물이 실려 있었다.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 계란 크기의 혹을 가진 선원의 시체였다.

시신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고, 이들의 땀, 오줌, 호흡, 배설물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풍겼다. 흑사병의 유럽 진출이었다.

물론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된 흑사병의 최초 그리고 유일한 경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그다드를 거쳐 티그리스 강을 따라 아르메니아를 지나 크림반도 이탈리아 상인들의 화물 수송로를 따라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 무서운 질병은 메시나 항구뿐 아니라 북이탈리아 도시 제노바와 베네치아로 확산되었고, 1348년 봄에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했다. 1348년 1월에는 튀니스를 통해 북아프리카로, 마르세유를 통해 프랑스로, 3월경에는 프랑스 중부까지 전파된다.

로마와 프로렌스까지 침투했을 때는 그해 5월경이었다. 6월에는 파리, 보르도, 리옹으로, 7월에는 스위스와 헝가리로 확산됐고, 1348년에는 잉글랜드로, 그리고 그해 6월에는 런던을 공격했다. 곧 스코틀랜드로 확산됐다.

2. 무지한 대처

흑사병이 창궐하자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유럽의 어느 도시이든 마찬가지였다.

적절한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이

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세척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에도 소홀했다. 치료기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진단 방법도 없었고, 나타나는 증상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였다.

최선의 대책은 격리와 도피뿐이었다. 즉 감염된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피하는 것이다. 부유한 이들은 재산을 버리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고, 부모는 자식을 버렸으며, 자식은 병든 부모를 내다 버렸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은 병든 아내를 멀리했으나, 누구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돌보는 이 없이 떠돌아 다녔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고, 옛정이나 돈으로도 죽은 자를 묻을 자가 없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 누구도 버려진 자들 가까이 접근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병자들과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 옷에 닿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다.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는 오늘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격리와 도피로도 퍼져가는 역병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탈리아의 피렌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가 병원균을 옮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닦지는 대로 죽여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병에 대한 무지는 도리어 전염을 가중시켰다. 죽은 가족들이 실제로 페스트의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죽은 개들과 고양이들은 쥐가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쥐의 급속한 번식은 도리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질병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공포의 괴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t VI)는 1350년을 성년(聖年)으로 선포했다.

'성년'이란 가톨릭교회에서 특별히 기념할 일이 생겼을 때 교황이 선포하는 행사년을 의미하는데, 성년에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행하고 로마의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을 순례하고 참배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대사면년(大赦免年)의 선포였다.

이 성년은 1300년 교황 보니파치우스 8세(Bonifacius VIII, 1294-1303 재위)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100년마다 한번 씩 성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는 너무 긴 기간이라는 이유로 50년 주기로 성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350년을 성년으로 선포한 것이다.

특히 그는 로마를 순례하는 자는 연옥을 통과할 필요 없이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자 질병에 시달린 수많은 이들이 로마로 향하는 순례 여행에 동참하면서, 질병은 확산되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약 100만명의 인파가 로마로의 여행에 참여했으니, 괴질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계속)



백석대 명예교수 이상규 박사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TOPMEDIAUSA Custom Market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GOOD FRIENDS FOR CHURCH 미디어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은

누가복음 10:17-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세월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웃으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기도와 지치시는 모습으로 생각되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자신이 슬퍼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이성을 잃고 마귀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스스로 멸망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서 슬퍼하시고 울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1. 1차 전도여행: 12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역사의 체험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후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12제자를 둘씩, 6팀을 만들어 1차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열 두 제자에게 영적전쟁을 훈련시키신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지옥 길로 끌어가려는 마귀 사탄에 대항하여 예수님은 처음으로 12제자를 자신의 군대로 삼아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키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영적전쟁이란 것은 성령 받은 사람과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잘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온갖 능력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 정병이 되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악령과의 대결, 사탄과의 싸움을 위하여 전쟁터로 내보낼 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 보낸 것은 영적전쟁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성령을 받고 말씀에 이끌리며 전도할 때에 부딪히는 악령의 대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대응할 준비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미리 준비하셔서 전도하러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성과로 인해 기뻐하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을 더 많이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12명이고, 두 번째는 70명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내보내실 때는 그 영적인 성과로 인해 기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2차 전도여행을 가는 70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2. 2차 전도여행: 70인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2명씩 35팀이 되었습니다. 2명씩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2라는 숫자를 증인을 세울 때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야하기에 증인이 성립되는 숫자인 2명씩 보내신 것입니다.

70명이 성령과 진리로 완전 무장하고 예수님이 내보내셔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0명이 전도훈련 나갔다가 전쟁하고 승리하여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70명이 전도여행에서 승리를 하고 영적인 쾌감에 도취되어 흥분한 것입니다. 기뻐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며 주님의 이름은 작게 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들이 사탄과 전쟁하러 갈 때에 부여주신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즉, 그들이 성령 받는 순간에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호적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분만큼 상속권을 부여 받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억제하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귀신들과 영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21에 보면 "나더러 주어 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쳤는데 왜 나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습니까?" 할 때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개인의 명분과 실속 챙기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나 지금이나 주무시지 않고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돈벌이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예수님의 기쁨: 영혼 구원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죄짓고 지옥에 갈 인생들을 항상 염려하시고 가슴 아파하심으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은사와 영적인 힘을 더하여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정신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 상황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악령에게 승리할 때마다 지옥은 허물어지고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옥을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면서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도록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은사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악령과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령을 몰아내고, 그 사람을 빼앗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고, 천국을 소망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이제부터 힘써야 합니다.

빌립처럼 "와보라" 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면, 그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악령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이끌려가던 인생을 빼앗아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영적으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아 헌신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령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싸우시고 말씀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항상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더욱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는 목적을 복음 전도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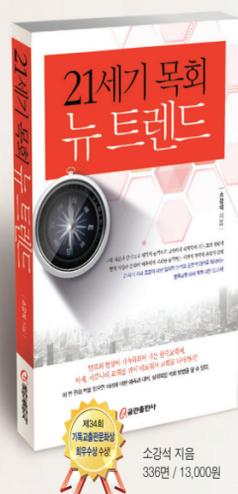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말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1999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례교교회 담임목사로 사임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등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야 할 차세대 대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미션 푸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최성현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학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신학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군 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흥,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동문회장, 호남신학대학교 이시, 한국노회교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쿨란출판사

한 청교도의 고민과 답변 “구원받은 인간이 왜 이다지도 변하지 않는가?”

[신간 서평]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간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청교도 사상의 가장 핵심에 있던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신간이 나왔다. 본서는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었던 시기에 미국의 청교도 목사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준 조나단 에드워즈(1703년 10월 5일-1758년 3월 22일)가 주장한 인간론과 성화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혼돈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 에드워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인간론과 성화론의 측면에 설명한다.

에드워즈의 논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부여한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짓는 순간과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본질로서 부여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에드워즈는 이해의 기능과 성향성(disposition)이 바로 이 특성들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이해의 기능이 있기에 성향의 기능도 하는데, 성향성에는 이해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표지를 통해 성향적 존재 양식을 부여받았다 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인간이 신앙생활에서 수동적이며 적극적이지도 못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위는 세상의 조그마한 현실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보다도 훨씬 비적극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아직도 내면세계에 물질 중심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행동거지의 틀을 만들어 놓고 죄로 인해 어둠을 좋아하는 성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인간의 정신은 비록 수동적이지만 수동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기능이 존재함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인간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중적(二重的) 주

체성이다. 에드워즈는 이중적 주체성 개념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인간의 능동적 행동은 성화되는 과정에서 수동성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며, 인간의 자유는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육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함을 강조한다.

에드워즈는 그의 책 「자유 의지」에서 인간의 본성인 성향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원인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는 인간 성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나타나는 표지라고 논증한다. 그는 인간의 성향적 존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짐”의 현상을 나타내며,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에드워즈의 논지를 통해 저자는 “기울어짐”의 현상은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끌어내며 또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필수 불가결한 표지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성향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과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되는 관계론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목적과 관계가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향적 존재론을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원인자로 규명한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인간 정신의 수동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 성향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성경적 논증을 통해 주장한다. 성령으로부터 받는 믿음(수동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선물과 이 믿음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표지(능동적)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더 나아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주체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임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이중성 주체성에 대해 성령의 이끄심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명령에 순종만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마음)은 항상 “성향적 존재론”을 기초로 하여 표지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에드워즈가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인간도 전부 한다”라는 논지는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 인간 정신(마음)이 가지고 있는 수동과 능동의 특성이 맞물려 있음을 본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에드워즈는 “성향성 있는 존재”는 행위를 통하여 어떤 표지가 도

출되며, 이 도출은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 거룩한 욕구의 표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거룩한 욕구를 거룩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그가 믿음을 행위까지 필수적인 요소로 확장한 것은 “성향적 존재론”의 본질에는 거룩한 욕구의 발생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필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전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사실의 가장 좋은 증거이다.

물론, 이 문제는 기독교 사상의 오랜 주제였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초점이었으며, 성경에서 언급된 사도 야고보와 바울의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에드워즈가 지적하고 있는 믿음을 통한 성화의 표지는 “믿음은 본질상 실천이거나 활동”이기 때문에, 실천도 어떤 식으로든 구원이나 칭의 그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표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고후 4:19)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력과 애씀”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에드워즈는 자신의 성화론에서 제시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빌2:12-13)의 말씀을 인용한다.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성화론의 주관적 개념은 성향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반응에 대한 적극 행위를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자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내재를 통해 빛의 조명을 받고 있어서, 성령의 본성을 표지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성령의 존재 역시 성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중의 존재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랑으로 인간의 성향을 통해 표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성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성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동기, 겸손과 사랑, 신앙의 균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비록 성령이 주재하여 성화를 이끌고 가지만 협동을 전제로 하는 주체 자체의 내부적 구조는 인간 본성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적 형태는 인간을 성화의 길로 이끌고 가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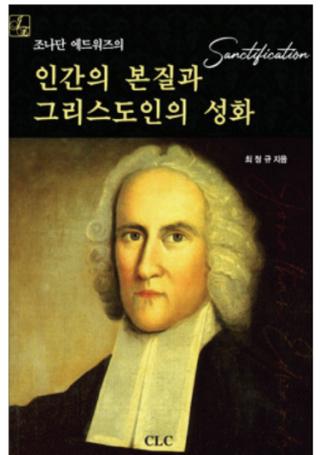
심이 성화의 대상인 인간 본성이 육신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성화론이 도출되며 에드워즈의 성화론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인식된 관계론적 인식에 기초하여 목적과 행위가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이를 두고 에드워즈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인간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성화의 이중적 주체성을 만들어 낸다. 성화의 이중적 주체성은 인간의 본성이 성향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본서는 에드워즈가 인식하고 연구하여 얻게 된 성향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밝힌 성화론의 원인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밝히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화론의 원인자인 인간의 본질이 “성향적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기독교의 사회적 위치를 성경적인 성화의 관점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교회 사역의 방향은 물론 성도들의 성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경 신학의 강조점에 기초하여 실천신학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회자의 설교와 교육, 선교, 그리스도인의 삶 등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향적 존재론의 정체성에 기초한 반응을 인식하면서 기초를 세워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적극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에드워즈의 존재론적 성화론의 기초 위에 목회적 방향을 세워 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현대문화에 휩쓸리기보다는 새로운 성경적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고 목회자는 이 기초 위에 풍성하고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으며 현대 문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적 분석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적이며 다양한 목회 방법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목회자들에게 에드워즈의 성향적 존재론에 근거한 성화론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공동체 내에서의 성도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귀한 도서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박성진(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아시아부 학장)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간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최정규 기독교문서선교회 408쪽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Now Enrolling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카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나트륨 Na : Cl	(정제염 - 황소금, 맛소금)
칼륨 K : Cl	나트륨 (Na)
칼슘 Ca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E.U.M Hemp Cafe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증가된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